

吳 廷 龍 先生님

『어쩌다 齒科道에 投足하여 行路를 걷다가 뒤 돌아 보니 於焉 70平生이라, 남은것은 白髮뿐이오 얼굴에 주름 뿐이라 모-든 것이 自己 스스로 걸 어온 길이것만 空然히 속절없는 歲月만을 恨하며 부질없이 虛無感에 빠진다.

남(他)의 口에 生을 걸고 이(齒)에 매달려 求食 하다보니 齒字에 對한 哲學이라고나 할까 齒字에 對한 破字풀이가 連想된다. 齒字하면 上의 止요, 下에 丨中에 𠂇하니 四八이라 上은 止이니 固定되어 있고 下는 丨(입버릿감)하니 可動的이요 下顎骨을 말함이라 中은 𠂇하니 四八이나 四八은 三十二하니 齒牙의 三十二個를 形容함이 아닐까.....

70平生을 걸어왔으나 무엇하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였음을 恨하며 怪辯愚說의 容恕를 베풀다.』

吳 廷 龍 (本貫 海州)黃海道出身
 1908年 12月 28日生 (滿六九歲)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 3街 23-1
 吳廷龍齒科醫院 院長
 醫院 (26) 0861 · 自宅 (99) 5964
 子女: 一男 4女 · 趣味: 登山



千餘坪에 가까운 庭園에 苗木, 蔬菜, 꽃 등을 가꾸며 餘暇 즐기시는 吳廷龍先生님과 넓은 庭園

KUM KANG
 Dental Lab.

(21) 0673 (21) 0095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 동 환
 서울 · 종로구종로 5 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